

앨리스ACT 총여학생회

e-mail:aliceact@hanmail.net

<http://alice.ssu.ac.kr>

(02)820-0867

편집 : 냥아, 부비

여성주의매체

앨리스



기획특집-노동
일할권리/일하지않을권리

>> 차례

////////// 기획특집-노동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싶다.	- 4 쪽
내 친구 이야기	- 6 쪽
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 8 쪽
덜어두기	- 11 쪽
미소속의 멜랑콜리	- 13 쪽
성차별은 살아있다	- 15 쪽
이 세상은 수퍼우먼을 원한다	- 18 쪽
요리하는 남자	- 20 쪽
진실로 일/하/고/싶/다.	- 22 쪽
할머니의 어머니가 할머니께 물려준 것	- 24 쪽
언니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27 쪽

////////// 새로쓰기	
여성운동 하기 : 확 "깨는" 즐거움	- 33 쪽
미디어 비평 : 이승기의 <내 여자니까>	- 35 쪽
행사 다시 보기 : 새활을 다녀왔더랬지!!	- 37 쪽
행사 다시 보기 : 월경 페스티벌!!! 그 색달랐던 축제의 추억이랄까?	- 39 쪽
현상수배 : 막말하는 마초 네티즌을 고발합니다!	- 42 쪽
We are good sisters : 지치지 않을 수다	- 44 쪽
We are good sisters : 자꾸만 사라져버리는 내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 47 쪽
사진칼럼 : 여성의 밤길을 되찾자 ~~	- 50 쪽
함께해요	- 52 쪽
쑥덕쑥덕	- 54 쪽

>>그림출처

sinazip.com / TADAHIRO UESUGI ILLUSTRATION / 언니네 / 하루일기 /

TS-LAD /



일할꺼리/일하지않을꺼리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내 친구 이야기

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덜어두기

미소속의 멜랑콜리

성차별은 살아있다

이 세상은 수퍼우먼을 원한다

요리하는 남자

진실로 일/하/고/싶/다.

할머니의 어머니가 할머니께 물려준 것

언니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기획특집!

노동

>>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싶다.

by. 신치

어렸을 적에는 각자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얘야, 넌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선생님이요, 의사요, 변호사요, 연애인이요..." 어릴 적 꿈꾸던 것들.

물론 나이가 한 살, 두 살 들면서 "그래, 그때는 꿈이 컸지.."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대학이란 곳에 들어오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며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 가게 마련이다. 또, 졸업이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란 새로운 공간과 만나며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직장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기란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늘의 별따기이긴 하다.

직장 초년생.

여자이기에, 항상 친절해야하며 웃어야 하고, 직장 내에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커피심부름, 복사심부름, 전화 상냥하게 받기, 등등 하기 싫어도 웃으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 부르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직장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또한 보이게 그녀에게 강요한다.

"결혼도 했고, 이제 애도 낳아야지? 이제 곧 회사 그만두겠네"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히 일했다. 이 회사에서 내가 무언가 이룰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덜컥, 임신을 해 버렸다. 차마 아이를 지울수는 없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출산했다. 배가 많이 불러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6개월 정도 휴가를 얻었다. 아이를 출산하고, 두달정도 쉬고,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내 자리가 없어졌단다. 회사에서 하는 얘기란 "oo씨, 회사 그만둔거 아니었어? 애도 있는데, 집에서 애나 키우고 집안일이나 하지, 회사는 뭇하러 나오려고 해? 그리고, 이미 oo씨 하던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여기저기 다른 회사를 알아봤지만, 이미 나이 서른을 훌쩍 넘겨버린 기존의 여성이 얻을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음을 느낀다.

결국 내 직업은 "전업주부"가 되어 버렸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시댁 행사 일일이 다 챙기다 보니 친정이란 단어가 내게서 사라졌다. 매일 세 번하는 밥, 아이들 짜증 받아주기, 남편 신경질 받아주기, 청소, 빨래, 내 평생 다 받쳐 일한 보람 하나 없는 가사노동이 너무나 힘겹다. 결혼한지 10년, 앞으로 살아가 수십년.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찔하다.

이제라도 나는 가사노동,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내 친구 중에는 지금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다.

나와 고등학교 시절 제일 친하게 지낸 이 아이는 4년 제 대학을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제 대학

을 갔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그 것은 굳이 4년 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 제 대학을 택했다고 하였다. - '게임'. 그래서 유명한 2년 제 대학의 게임 관련과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교를 1년 다닌 후의 내 친구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이젠 거의 목표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게임회사라는 곳은 생각 이상으로 까다롭다. 채용도 거의 안 할 뿐더러 뽑는 인원은 최소인원. 이를 있는 게임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최고 게임회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이다. 졸업 후 대기업게임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소기업게임회사에 들어가는 건? 역시 힘들다. 수시채용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한 것을 보고 '이게 웬 떡이야?' 생각하고 이력서를 넣고 연락오길 기다린다면 아마 목이 몇 개라도 모자랄 거다. 간혹 운이 좋아서 뽑힌 후 그 게임회사에서 일한다고 쳐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다름 바 없다. 그리고 실력이 있더라도 여자는 더구나 뽑히기 힘들다. 친구는 취업을 위해 대학에 들어가 여기 저기 열심히 문을 두들겨 봤지만 세상의 문은 너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은 여자에게는 더욱 높고 두터운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친구는 크나큰 좌절을 하고 1년 휴학을 딱 하니 해버렸다.

나처럼 이 친구도 남에게 걱정 시키는 건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안 좋은 일은 웬만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어느 날 친구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 꿈을 이루려고 (학교) 들어왔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는 작년 겨울방학 내내 게임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었지만 막상 회사에서 면접을 보면 회사 측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달기도 하였고 생각보다 회사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망과 좌절만을 거듭했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보낸 내 친구는 '정지' 했다. 앞으로 갈 수 없기도 하고 이젠 가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난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친구는 현실의 냉혹함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위로의 거짓말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급도 대우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졸업하고 취업이 아무 곳에도 되지 않을 경우 이 곳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 임시직을 만들어놓기 위해 -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는 2달에 100원씩 급료가 올라가며 그만두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의 데이터가 기록에 남아 그만 둔 후 나중에 다시 일할 경우, 그만둔 이후부터 기록이 이어져서 작성된다고 한다.)

난 사회에 화가 난다. 도대체 왜 게임회사까지 남자와 여자를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모든 게임회사가 그렇지 않다는 건 나도 안다.) 뒷걸음치지 않고 오로지 꿈을 위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내 친구를 정지시킨 것에 화가 난다. 내 친구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내며 노력도 많이 하고 재능도 있고 사람들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사회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아이이다. 그런 아이를 왜 '여자'라는 이유로, 내 친구의 값어치는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구겨 넣는지' 모르겠다. 난 세상에 분노한다.

한 학기의 끝에 찾아오는 방학은 나에게서는 그다지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대학에 오면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약속이고, 이제 부쩍 늘어난 주름진 얼굴로 점점 병원을 찾는 횟수만 늘어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있다면 의무감에서도 나는 매 해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찾아 헤매야한다. 즉, 방학은 시작은 휴식의 시작이 아닌 노동의 시작이었다.

1학년 시절 아르바이트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던 나는
그저 자취방 근처를 돌아다니며 평소와는 다른 소심한 목소리로,
"저..아르바이트 구하시죠? 구하셨나요?"

라는 똑같은 문구를 수십 번씩 고장 난 라디오 마냥 되풀이하며 돌아다녀야 했다. 나름이 아르바이트 경력이 쌓인 지금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찾기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생겼다 라기 보다는, 역시나 할 수 있는 건 각종 아르바이트 구인정보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들을 돌아다닌 후 나름대로 경험상 괜찮아 보이는군..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본전도 안 나올 만큼의 전화를 돌린 후 발로 뛰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해 본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테지만 학생의 신분에서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 거추장스러운 성별을 달고서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구하자는 것은 순탄한 여정이 아니다. 그 시작은 보통 '알바누리'나 '알바천국', '다음 채용정보' 혹은 가룸에 콩 나뭇 올라오는 학교 홈페이지 등등..여러 채용정보를 검색 하는데서 시작한다. 우선 지역을 좁혀서 검색 한 후, 주르르 특~ 올라오는 제목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간다.

'어! 이거 좀 괜찮네. 시급도 썩고 시간도 딱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별 '남'을 발견한다. 그렇다. 깜빡 잊고 성별을 정하지 않았다.

헛! 나도 저 정도 일 할 줄 아는데 웃기지도 않아..라고 생각해 봤자

나의 오너께서는 나를 원하지 않는 걸 안다.

그리고 다시 내 손은 바쁘게 스크롤바를 내리고 하염없이 다음 페이지, 다른 홈페이지로 옮겨 다닌다.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의 마지막 자락을 근근히 붙잡고 버티고 있는 나에게 구원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메아리 쳐 온다.

'그렇지,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하! 일당 5만원? 이거면 한달에 얼마

야?'라는 생각과 동시에 컷가에 울리는 종소리의 100배속으로 초스피드 더블 클릭!!

순간 나는 신의 존재 따위는 역시 믿지도 않았던 내 자신을 자각한다.

그렇다. 세상에 신이 언제부터 있었나 말이다.

물론, 키 165이상 몸무게 48kg이라고 명시 하지는 않았지만 세련되고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 멋진 언니를 기다리는 나의 사장님 역시 나를 반겨주지 않으리란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의 수많은 고통담의 썰을 풀자면 천일야화는 껌이겠지만 다들 아는 얘기 내 손만 아플테니 이 정도로 접도록 하자.

어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역시나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면접이 남았지 않았나 말이다. 우선 전화기를 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단정하고, 성격은 쾌활 명랑, 모든 일에 능통할 수밖에 없는 성실한 여자 아르바이트 생으로 돌변해야 한다. 전화 면접은 아르바이트 구하기 계의 내공 20의 고수인 나로서 사실 그 정도는 우습다. 순진한 사장님은 나의 180도 변한 하이톤의 목소리에 녹아 내린 것 같다. 이제 면접만 끝내면 되겠군.

안도의 한숨을 돌려 쉰 후 입고갈 옷을 체크한다.

역시 여대생은 평범해 보이는 면 치마에 단정한 구두, 거기에다 조금 귀엽고 순진해 보일 수 있는 티셔츠 정도면 될 것 같다.(이건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OK! 완벽하다.

이제 마지막 한 고비, 하지만 가장 큰 산, 면접을 향해 돌진~

역시나 나는 전화상의 나를 상상하는 사장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애인 앞에서조차 잘 보여주지 않는 얌은 미소를 머금고, 담배는 딴 세상 이야기 인냥 딴청 피우고, 그다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든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뿐이라고 믿는 냥 잘도 떠들어 댄다.

이렇게 나의 아르바이트 구하기 프로젝트는 방학의 시작인 일주일이나 훌쩍 지난 후에야 끝을 보게 되고, 분명, 악전고투이기는 했지만 완벽한(?) 나의 승리임을 자각한다.

그러나 돌린 한숨과 함께 내 가슴 한 구석이 시려오는 걸 느낀다.

아르바이트 시작 3일 전, 이 시린 가슴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술잔도 기울여 본다. 그리고 이 술잔은 역시나 여자 노동자로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나에게 보내는 위로의 잔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하루의 피로와 종일 참은 담배를 일을 끝낸 직후 조차에도 뱉어내지 못하고 오롯이 내 공간인 내 방 창문 앞에서야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뱉어내며 침대에 몸을 누일 것도 이제는 알고 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본다. 그래도 그것이 잠깐 동안의 이 방학만 지나면 끝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게 끝도 알 수 없는 내 일상이 되는 순간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봐야할까..하고 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양이라도 떨고 아르바이트를 버텨내며 방학을 보내는 나를 보고 기특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적어도 조금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비록 아르바이트 구하지 못하더라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나 라는 것이다.

"저는 담배를 피고 당신이 생각하는 착한 여대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보다 더 잘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만큼 똑같이 일하며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눈 앞의 현실인 '돈'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지라 나 또한 장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유쾌한 상상을 해 본다.

나의 사랑스러운 여자 친구들!
그러니 당신들도 파이팅!!
남자 아르바이트생 그들처럼 우리도 사장님과 맞담배를 필 수 있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 덮어두기

by. 꼬마

2004년 8월 16일 월요일

오늘도 그남은 흠어본다. 그 눈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건지..
내일은 꼭 말해야겠다.

2004년 8월 17일 화요일

어김없이 흠어봄.
드디어 말했다. 지금 눈이 어디 가 있는 거냐고.
그남의 행동을 수정하기위한 작업.
하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내려가는 시선.

2004년 8월 18일 수요일

평소엔 별 교류도 없던 사장님의 부름.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남이 혼나고 있었다.
사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안거지??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남이 어떻게 행동했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내가 그렇게 느꼈냐고?? 내가 보기에 그랬냐고??
심장이 떨리고 들이쉬는 공기는 나의 폐로 들어가는 건지 머리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게 험하고 갑자기 알몸이 되어버린 듯 창피하고 춥다.
춥다. 두렵고, 무섭다.
그남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또 다른 그남의 재차 확인작업. 이/차/가/해.

그리고...

2004년 9월 10일 금요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 그곳에 출근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그곳은 나의 생계를 위한 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남들은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SHINAZIP.COM



그남들의 폭력을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일만 할 수 있는 날을 상상하며 잠을 청한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겠지. 그런 세상..

오늘도 그남은 여전히 나를 홀고 나는 오늘도 그남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에 상처를 모래로 덮는다.

>> 미소속의 멜랑콜리

by. 기동청년

비행기를 타본 적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이라면 승객들은 무척이나 흥분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된다.

고교시절... 내가 다니던 인근의 한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간다고 하였을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 것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도 많았었다.

그 친구들은 수학여행 후 나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분들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서 그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한다.

다른 부분보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은

그 스튜어디스들의 사진속의 웃는 모습이다.

물론 나이 어린 학생들의 행동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당연히 그에 반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인상을 찡그러뜨리는 사진은 없었던 듯 하다.

이렇게 비행기 승무원들의 감정유지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의 항공 이동에 따른 피로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승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밝은 웃음을 제공하는 그네들은 만성적인 피로 때문에 악물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광고가 조장하는 성적인 이미지들을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통상적인 예다.

친절과 웃음이라는 감정 노동이 스튜어디스의 이미지 전체를 구속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그네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래전 비행기 승무원들의 모습을 다룬 주말 드라마에서처럼...

승무원들만 들어가는 스텝들의 공간 어쩌면 '무대 뒤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아픈 다리를 주무르고, 승객들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만, 다시 '

무대'가 되는 승객들에게 가면 다시 웃음을 보여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감정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위장된 행동과 얼굴 표정, 몸짓들, 상황에 따른 감정 규칙들 모두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괴리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에서 감정노동은 그들의 '생활'전선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노동이 우리의 생활에서는 중요시 되지 않고 노동이라는 조건에 용인되기 보다는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며 생활 하는 듯 하다.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포드주의가 가지는 비인간성과 자아의 상실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한다.

감정 노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잃어가는 모습들...

분명 이것은 노동의 형태이며 법적 보호와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성차별은 살아있다

by. 시로

나는 대학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까진 여성노동이니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니 하는 것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았다. 우선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랬고 학교에서나 내가 경험한 좁은 세계의 사회에서

별로 차별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학오기 전까진 나는 '교과서의 민주와 평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어렴풋이 뭔가 내가 모르는 세계나 어떤 큰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 와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였다.

내가 처음으로 한 아르바이트는 대학교 1학년 때 호텔예식장에서의 서빙이었다.

호텔서빙알바는 다른 알바와는 다르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날만 골라서 일할 수 있고 페이도 그날그날

즉시 입금인 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맘에 들었다.

친구와 함께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전화를 하니 맨 처음에 묻는 말이 내 몸 무게와 키였다.

첨부터 대뜸 몸무게를 물어보다니 혹시 변태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난 상당히 당황하여 "왜요?"하고

반문했다.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유니폼이 55사이즈밖에 없어서 유니폼이 안 맞으면 일하러 나왔다가도 그냥

집에 가야하는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란다.

난 55사이즈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음날 호텔로 일하러 나갔다.

하지만 예식장 유니폼이란 것이 얼마나 작은지 난 55사이즈의 치마도 조금만 힘주면 터져버릴 듯해서

66사이즈의 옷을 입게 되었고(유니폼은 66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였다.) 두 뺨 정도 초미니스트 치마 길이에 굉장히 당황해했다.

난생 처음 입는 그런 치마를 입고 바닥에 앉을라치면 치마길이가 더 짧아져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몸에 딱 맞게 하는 유니폼은 일하기에도 불편하다.

난 유니폼을 입고 호텔에서 규정된 구두를 신을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형처럼 입혀놓고 구경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첫날 일하고 사장님은 내게 페이를 주면서 예전엔 호텔과 애들이라고 해서 오면 다들 선남 선녀이다.

그래서 얼굴도 안보고 뽀얗았는데 요즘은 호텔과가 하도 많이 생겨서 애들이 와도 "영 아닌 애들"만 온다는 등.

괜찮다 싶은 애들은 안 나오려고 하고 영 아니다 싶은 애들은 자꾸 나와서 죽겠다고

내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사장님의 솔직한 그 말은 내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기분은 나빴지만 나는 그냥 넘겼다.

그 뒤로 66사이즈인 내 친구를 포함하여 그날 같이 일했던 몇 명은 다음날부터 같이 일할 수 없게 됐다.

그 당시 나는 여성학이니 페미니스트니 그런 것들에 대해선 막연한

관심만 있었을 때였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너는 오래 일 해줬으면 한다는 말에 사회에서 여성이 몸무게로만 평가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글픔과 함께 그래도 나는 선택받아서 다행이라는 약간의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다.

호텔 서빙 알바는 예식이 끝나고 뷔페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

게 있어선 굉장히 매력적인 알바였지만 그 뒤로 몇 번 나가고 그만 두었다. 매번 요번에 온 애들은 영광이라는 등 마초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장님도 굉장히 신경에 거슬렸고 신부교육이라도 시키려는지 말끝마다 "여자가~"하는 후렴구도 지겨웠다.

초미니스트인 유니폼도 맘에 안 들었지만 죽 훑어보시는 눈길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기만 했다.

또한 호텔 알바의 특이한 손님 응대시의 항상 얼굴에 띄우는 미소, 단아한 머리모양, 호트러짐 없는 자세의 요구 등도 온갖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용모단정-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예쁘거나 잘생긴 거'가 아니면 오지 마라" 이런 말을 돌리고 돌려서 용모단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특히 커피숍이나 호프집 같은 서비스업 판매직 같은 곳이 그런 사람을 구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커피숍이나 호프집 외부와 옷차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낭패 본다.

나도 처음엔 그냥 단정하다는 그 자체로 깔아보고 전연인상이나 참한 모습을 일컫을꺼란 생각을 했는데 사회에선 그렇지 않다.

비단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용모단정'이 많은 특히 여성의 취업조건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사원 모집 조건에 학력이나 전공, 자격증 여부와 더불어 "용모단정"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의 취업 조건에서 용모가 빠지지 않는 것도 여자들의 일에서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는데서 비롯된다. '이왕이면 예쁜 여자가 낫다'고 하는 속에는 '여자는 다 비슷하다'는 전제가 들어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구직난이 심각해질수록 이 '용모단정'이 여성 인력을 고르는 한 기준으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남녀평등 조항이 있고 국민에게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또 고용평등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 일뿐 내가 느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전에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치과의사이다. 병원일에 힘들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의 아침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잘하는 그런 여성이다.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 하는 그런 여성.

얼마 전, 어느 드라마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 일을 끝내고 집에 갔더니 집은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 그릇은 쌓여 있고, 반찬그릇은 온통 다 쏟아져 난장판이 된 집안을 눈물을 흘리며 치우는 장면을 보았다. 파출부 쓰자던 이 여성의 말에 반기를 들며 자신이 파출부 줄 돈을 받고 집안일 하겠다던 사이가 좋지 않던 여성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꿀탕 먹이려 일부러 집안을 더 어질러놓았다. 이에 화가 나서 용돈을 적게 주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한바탕 싸우고 여성의 남편, 즉 시어머니의 아들이 들어오자 나이 먹고 힘들어 하루 치우지 못한 자신을 며느리가 타박한다며 눈물 연기를 자아낸다. 남편은 아내에게 일하는 게 대수냐며, 아내를 나무란다. 이에 아내가 한마디 던진다.

"내가 수퍼우먼이야? 어떻게 바깥에서 돈도 벌고 집안일까지 다해?"

그러자 남편은

"그럴 거면, 일 하지 마, 너 안 벌어도 내가 다 벌 수 있으니까, 넌 집에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이나 해!!!"

요즘 신부감 1위가 선생님과 공무원이란다. 왜 많은 남성들은 선생님과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기를 선호하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선생님과 공무원은 공통점이 있다.

- ◆ 아침 8시 혹은 9시까지 출근이고, 저녁 5시 혹은 6시가 되면 칼 퇴근 할 수 있다.
- ◆ 야근이 많지 않다.
- ◆ 결혼하고 출산을 한 이후에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 ◆ 퇴출 될 위험성이 적다.
- ◆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공통점 중 "돈도 벌고, 가사일도 함께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란 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선생님과 공무원의 직업을 가진 여성을 배우자로 선호하고 있다.

대중 매체는 말 그대로 대중의 감각, 생활을 나타낸다. 위에서 본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심해지는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 맞벌이 부부가 당연시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여성에게 일-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도 하고 가사 노동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지금껏,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에서 유급노동을 하기보다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만을 하기를 강요

당해 왔다. 또한, 일-유급노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결혼 한 이후에도 결혼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혼 한 이후에 여성이 일을 하고자 하면 대부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은 하되, 집안"일"에는 소홀해지지 말 것!!!

여성들은 수퍼우먼이 아니다. 많은 남성들이 힘들고 고된 회사 일에 찌들어, 집에 와서 편히 쉬고 싶은 것처럼, 많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도 가정으로 돌아와 편히 쉬고 싶다.

우선 집안일, 가사노동과 육아의 의무를 그녀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남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와주는"것이 아닌 그들의 "일"로 여기고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맞벌이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험한 경제난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고 말이다.

TV드라마의 위력은 대단하다. 모 연예인이 하고 나온 목걸이, 드라마의 어떤 장면에서 나온 장소 등은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된다. 지난 뜨거운 여름, 물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은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각종 매스컴에서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 한기주는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 하지만 사랑 말고 또 있다. “집안일” 사랑하는 여자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 일을 하라 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 된다.

한기주가 연인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줬다 해서 남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를 위해 노래를 연습하기도 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다. 한기주가 만약 회사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함께하는 남자였다면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집안일을 돕는 데에도 노력을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거의 모든 대중매체에서는 집안일을 하는 여성과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의 모습이 많이 비춰진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남녀의 성역할이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KBS드라마 『애정의 조건』이 그것이다. 주된 내용은 맛바람으로 이혼 당한 여성과 동거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숨은 주인공은 극중 “장만득”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한다. 그가 나오는 장면은 대부분 주방이다. 밖에 나가 일을 하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며느리가 될 사람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을 때에도 “음식은 뭘 좋아하려나..”하며 걱정을 하고, 자주 장을 보러 가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었다.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칭찬하기도 한다. 다른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무능력한 남자이거나 아주 권위적인 남성의 모습을 뽐 내어인데, 회사 등을 다니지 못하는 능력을 집 안 일을 함으로

써 보완을 하고 있다.

이 남성들 “무능력하니까 집 안 일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무능력”이라함은 능력이 없다는 것, 하지만 집안일을 잘 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빨래와 청소, 음식 만들기, 설거지하기 등의 집안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노하우도 필요하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오히려 집안일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아내보다 훨씬 잘 알고 세심한 모습을 보인다.

그가 앞치마 한 차림과 아내의 아침과 점심,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획기적인 모습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여남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습이다.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 등의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는데 막는 말도 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로 주방 출입을 하는 남자들을 놀리곤 했던 게 사실이다. 그게 왜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 걸까? 집안일도 일인데 말이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별로 티도 나지 않으면서 매일 해야 하고 끝없이 해야 할 일이다. 같이 쓰고 같이 사는 집에서 왜 유독 여성만이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걸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식이다.



날씨 참 좋다!!

하늘도 좋고, 해도 좋고, 구름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아침 냄새는 정말 좋다.
상쾌한 아침.

그리고 나의 첫 출근.

그리 가쁜하지만은 않은 나의 마음은...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직장인지 모른다. 이제 사람들에게 몇 번째 직장은 무엇이 어땠고 몇 번째 직장은 또 어떤 게 저렸고 왜 그만두었으며 혹은 왜 짤렸는지 등등을 설명해 주는 것도 지친다.

궁금하니...??

나는 장애여성이다.

지체장애 2급으로 주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이동한다.

나의 정체성 가운데 벌써 두 가지를 알아낸 당신. 혹시 내가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것에 의문을 품거나, 또는 나의 이런 화려한 전적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이야기는 그냥 패스해 버리고 지나가라.

나의 첫 번째 직장은 3층 건물의 3층에 자리한 작은 회사였다. 보통 3층 건물이 다 그렇듯이 그 곳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아침마다 회사로 올라가는 길은 나에게 계단지옥이었다. 계단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낫지. 계단이 끝난 다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미끄러운 복도바닥!! 비장애인인 걸기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의 미끄러움. 목발을 짚은 내게는 더없이 위험한 길 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여직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한잔을 타서 부장님의 자리에 놔두는 것이다. 다섯명 남짓한 여직원 들은 매일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며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성이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알고 있고 당연 거부해야 한다는 것 역시도 알고 있지만 그 일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그래 너는 장애인이니까.."라는 시선과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여직원이 한

번 더 고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작된 나의 커피심부름. 그냥 다니기에도 미끄러운 복도바닥을 목발을 짚고 뜨거운 커피를 들고 조심조심 걸어 다니기를 몇 달째. 드디어 일이 터져버렸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들고 가다 미끄러져 버린 것 이었다. 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난감함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동안 나는 내 몸에 쏟아진 커피의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삼일 뒤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더 듣고 싶니...??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서 무엇이 그렇게 더 듣고 싶니? 나의 무용담이? 흥미진진한 한 장애여성의 직장생활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눈물겨운 노력이?

더 이상 궁금해 하기보다는 문제를 느끼고 함께 고민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단지 나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단지 장애여성이라는 소수집단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당신의 고민이 더해져 나의 다섯 번째 직장인 이곳만은 제발 괜찮은 곳 이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가득 담겨있는 건물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의 고민을 함께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는 동료들과 서로서로 기본적인 배려는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성차별·성별분업이 없는 업무분담이 있는 그런 곳. 어제 밤 꿈에서 보았던 곳. 제발 일할 수 있는 곳 이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물려준 것.
그리고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졌던 것.
나만은 다르겠지... 나에게도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
강요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것이.
이젠 어느새 내 언니의 것, 그리고 내 것이 되어버렸다.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난 딸이다. 빠져나갈 수 없다.

20여 년 전, 마포의 한 단칸방.
깊은 고민에 빠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
"일단 자식 넷을 낳아 놓긴 했는데..."
한방에 쪼로록 나란히 누워서 세상모르고 잠든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주를 얻은 듯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앞이 캄캄하다. 애들을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려면 월급쟁이 봉급으로 끼니 때우기도 어렵다.
몇 날 며칠 고심 끝에 당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맞벌이였다. 내가 한 살배기였을 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시작하셨다. 아직 젖도 못땀 막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때마다 현관 앞에서 눈도 뜨지 않은 채로 뛰어나오는 막내는 나갈 채비하는 엄마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린다. "엄마 나가지 마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떼어내곤 고단한 노동을 시작한다.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찌들어 9시가 넘은 시각에 집에 들어오면 동생들과 오빠의 저녁을 차려준 9살 큰딸을 기록해하며 쌓인 설거지를 한다.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안 정리며 청소를 하고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남아있는 빨래는 해야 한다. 그리고 내일 아이들이 먹을 반찬거리도 만들어 놓아야하고 큰 녀석 도시락 준비도 해야 한다.

이런 생활을 20년 동안 해 오신 어머니는 딸들이 대학에 하나둘씩 들어가게 되자 조금 여유를 갖게 되셨다. 집에서도 내내 일만 하시는 어머니가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딸들은 알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자 생활에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딸들은 집에 있게 되는 시간이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을 정리한다. 책을 읽거나 자기 공부하는 오빠의 저녁은 꼭 챙겨주고 내 불일을 보러 나간다. 그렇게 집안 일, 가사노동은 어머니에서 딸로 자연스럽게 상속된다.

얼마 전까지는 큰언니와 둘째언니가 일을 나누어 해왔다. 가끔씩 나에게도 갖가지 일거리들이 주어졌지만 요리조리 피해가며 가사노동의 거미줄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큰언니가 5년 연애를 마치고 지난 7월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모든 집안일들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백수인 둘째언니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덕분에 어머니나 나는 편했다. 모든 일을 언니가 함으로써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나 나에게로 돌려질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언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자기가 나서서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새로운 일본어 공부에 푹 빠져 있었지만 학원을 마치고 나면 늘 집에 와서 일을 했다. 언니는 집안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어머니가 그랬었던 것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노동이라 생각지 않았다. 취직을 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식구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생(나)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두 달 여가 지나고 언니는 취직을 했다. 드디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난 기뻐할 수가 없다. 물론 기쁘지만 그 기쁨을 100% 즐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음 타자는 내가 될 테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어머니와 언니들이 해왔던 그 노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진 않지만 집안 식구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사노동. 난 지금 아주 애매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가사노동이 여성에게만 전가된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아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와 둘째언니가 이 일들을 다시금 해야 한다. (물론 그녀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분명 아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늘 중요한 일을 하고 다니는 척하는 아버지나 오빠가 그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깐.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포기한 채로 가사노동에 전념하기에는 내 자신이 갖는 작은 신념이 흔들리게 되니 말이다.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모두가 가사 일을 분담하면 되지 않는가. 모두가 공평하게. 누구에게도 과중되는 것 없이. 나도 물론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금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이기심만을 탓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젠장, 일하기 싫어요." 라는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언니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by. 언니

9월하고도 반이 지났다. 여름 내내 배에 힘주느라 고생 많았다. 이젠 적당히 펴령한 티로 개길 만한 계절인 것이다. 가을, 과연 그게 다인가?

신입생을 벗어나면 깨닫게 된다. 2학기가 얼마나 후다닥 지나가 버리는지. 그리고 졸업반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다. 그 동안 해 놓은 게 없다는 걸. 개인차가 있겠지만, 학점이 빠방하건 따놓은 자격증이 있건 각자가 느끼는 밀도 끝도 없는 공허함과 공포는 당해봐야 안다.

불경기란다. 언제는 아니었나? IMF는 시작이었지. 청년실업이네 취업대란이네 그런다. 누가 모르나?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게 문제다. 아무리 뉴스네 신문이네 아무리 떠들어 대지만 본인이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실감해보기 전에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다. 졸업 전과 후가 또 다르다. 나도 그랬고, 내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이제부터다. 취업 준비는. 지나와본 나는 너희들을 동정한다. 전교 1등이든 반에서 50등이든 죽어나는 건 똑같은 고 3처럼, 하루 이를 지나 풀릴 불경기가 아니기에 나는 너희들이 안쓰럽다. 앞으로 너희가 받을 상처가 눈앞에 흰해서.

송실대, 서울 안 4년제다. 재학생들은 더러 종합대학교의 탈을 쓴 신학대학교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순전히 분위기고 밖에 나가면 그런 관심은 기울여 주지도 않는다. 아, 혹시 교회 쪽이나 그 쪽하고 연관된 일을 하려한다면 꽤나 쳐줄 거다. 난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

자, 그러니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보다는 쳐 줄 것 같나? 별로 아니라고 본다. 이게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더라. 하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다. 대학 간 판 따지는 현실에 치이는 순간이다. 입시에 피 말리며 가나다라군 따지던 때가 떠오르며 나보다 수능 점수 떨어지던 애들, 개들이 간 대학과 전공 등이 후루룩 스쳐 지나갈 것이다. 이런 것에 배 아파 하지 마라. 학과 성적만으로 평가 받는 건 딱 학생 때까지다. 너희도 학교 다닐 때는 너희보다 공부 잘 하는 애들 시기하면서 "공부가 다냐?" 그랬을 것 아니냐고.

다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날 이때까지 살아봐서 알겠다면 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남자와는 좀 다르다. 내가 내린 결론은 '적당한' 총명함과 상냥함이다. 남자들은 패기가 지나쳐 건방져 보이더라도 간혹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여자는 절대 아니다. 성별을 떠나 원래 부하는 부려먹기 편해야 하는 거다. 새로 들어온 게 똑똑해서 내 자리를 위협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다. 뭐, 이건 아주 나중의 이야기다.

면접까지 가기 위한 이력서는 내가 해 줄 수 있는 충고의 범위를 넘는다. 그러니 면접부터 시작하겠다. 다 내 얘기는 아니지만, 실화에 근거한 얘기들이 다. 더하면 더 할 거다.

소위 말해 '근성'을 보느라고 면접관은 별 걸 다 물어본다. 아주 재수 없게도 나온다. 이런 거에 당황하면 안 된다. 모교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질문도 서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세상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은 시험 받고 있는 거다. 토익 950을 넘는 성적에 300 대 1을 뚫고 들어가도 사장이 만년필을 고쳐오라고 집어 던지거나 전문대 학력의 상사가 학력 콤플렉스를 못 이겨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도 쉽게 때려 칠 수 없는 게 돈벌이다.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이런 걸 그럭저럭 받아들이더라. 군대라는 야만적인 사회를 답습해봤기 때문인 것 같다. 겪어보면 안다. 현실에 대해 저항할수록 나만 죽어나니까, 그게 사회인 거다.

그러니 대학 때까지의 화려했던 이력에 대해서는 뇌를 멈춰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해? 이 대접을 받자고?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누군가 할 일이고, 그 허드렛일을 위해 고용된 게 당신일 수도 있다. 남녀 막론하고 요즘 사람 남아 넘친다. 꿈을 갖고 사는 건 좋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꿈은 이뤄지는 게 황송한 거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면 못한다. 혼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증권회사 6년 차인 한 여성은 아직도 대리를 못 달고 있다고 했다. 대리, 드라마에서는 별 것도 아닌 보직 같던데, 그게 어려운 건가? 물론 드라마에서는 왕자도 넘친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현실은 그게 아니다. 남자에게는 사고 안치고 적당히 몇 년 버티면 다는 게 대리지만, 여자에게는 아니다. 여대생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해외영업부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회의예를 못 들어간단다. 여자는 안 끼어 준다대?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을 정

도의 영어 실력을 가진 그 친구는 일일이 서류의 스펠링을 확인하고, 해외로 보낼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외국 대사관이며 굵직한 관공서로 심부름을 다니는 일을 한다. 기껏 2달이지만, 비슷한 급의 서울 안 4년제를 나온 남자 선배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전체 돌아가는 일을 배우는 거다. 그래야 일을 지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상사가 시키는 잔심부름에 불과한 일만 하는 내 친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승진? 이대로라면 내 친구에게는 불가능하다. 뭘 알아야 장(長)을 할 것 아니냐고. 이런 걸 '유리벽'이라고 한다. 흔히 다 보이지만, 결국 벽으로 나에게서는 막혀 있는.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래, 나도 안다. 유리벽을 뚫고 유리천장까지 뚫고 올라가는 여자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단 한 명도 없던 때에 비하면 혁명적이겠지. 하지만 똑같이 대리에 오른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그 둘의 노력과 희생의 절대적인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직까지도 신문지상에 최초 운운하며 오르는 여자들을 보라.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슬프다. 너털 거릴 속과 자식을 비롯한 가정생활이 관찮을지 걱정부터 된다.



얼마 전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우려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나는 이해할 만했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였다. 로또랑 같은 거다, 남자로 땀 잡자는.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허영도 많이 낀 거고, 결국은 지가 못나서니까. 왜 돈으로 지 가치를 매기려고 하나. 이건 여자들이 반성해야 하지만, 한 편으로는 또 씁쓸해진다. 그만큼 여자들이 외양으로 평가받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운 년이 간 큰 년인 거다. 해답이 안 나온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졸업하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남자 잡아 시집을 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다. 오죽하면 취집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현실이 이런 걸 알아도 나는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안 죽으면 살아가니까, 어떻게 잘 살지를 고민해라.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 직장, 당장이 좀 거지같을 지라도 또 다른 꿈을 찾아라. 어차피 밥벌이는 지겨운 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거다. 당장 안 찾아지더라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일단은 안 굶어죽고 살아야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라.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게 보일 거다. 살아있으면 기회는 온다. 조금해하지 말고 준비해라. 그게 다 돈이어도 당신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목표가 있으면 모을 수 있는 게 돈이다. 부탁이다, 자신을 포기하고 남자한테 얹힐 생각 같은 거 하지 마라. 멋진 남자는 멋진 여자한테 가는 거다. 그러니 준비해라.



내가 살다가 깨달게 된 엄청난 사실 중의 하나는 남자들은 지들이 여자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다. 사실 남녀 막론하고 지가 답답한 게 아닌데 남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장한 짓,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남녀 차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같은 사람'으로 잘 지내도록 노력해라. 아니다 싶은 건 '알아듣게' 알려줘야 한다. 여성비하 발언에는 엄마와 누이를 상기시키면 효과적이다. 잡일은 기꺼이 해라. 말단이 안하면 누가 하겠나. 다만 같은 말단인 남자와 같이 해라. 당신이 막일을 하는 건 여자라서가 아니라 말단이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켜라. 당신 스스로에게도.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상 외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행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어느 새 나 자신도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걸 발견하기도 한다. 막상 해보면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더라는 거다. 뭐라도 하나 구체적인 일을 해볼 것을 권한다. 이력서라도 한 번 써봐라. 굉장히 허하다. 한 줄 추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써 봐야 안다. 엑셀은 프로그램 깔아놓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실제로 쓰이는 문서들을 만들어봐라. 영타 연습도 꾸준히 해라. 익숙해지기까지 만만치 않게 노력해야 할 거다. 돈 없어서 학원 못 다니면 아무 것도 못 할 줄 아나? 찾아서 해라. 찾아봐야 길이 보이는 거다. 신문도 경제면까지 꾸준히, 넘겨라도 봐라. 시작이 반이다.

송실대, 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아주 빠지는 간판도 아니다. 나머지는 노력으로 채워라. 나이 먹으면,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많다. 신입생 벗어나고 나니, 고 3때만이라도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들 다 까먹었지? 이제 다시 들 때가 온 거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안정된 거 아니고 만족스럽게 사는 거 아니다. 어떤 인생이건 간에 구르면 이끼는 안 낀다. 가을은 말이 살찌는 계절이기도 하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내 친구는 아직도 월급이 80만원이다. 하지만 집에 생활비를 대며 오빠가 삼성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고 2천만 원을 목표로 적금도 붓고 있다.

통새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풍선 공예를 배우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월 30만 원을 투자해 외국인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울 거란다.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남자와 결혼이 깨졌지만, 연애도 다시 시작했다. 난 그저, 그년이 열심히 사는 게 '고마워서' 루즈를 선물했다.



다들 힘내라. 조금하면 지쳐 나가떨어진다는 것도 잊지 말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다.



새로쓰기/고정칼럼

여성운동 하기 : 확 "깨는" 즐거움

미디어 비평 : 이승기의 <내 여자니까>

행사 다시 보기 : 새활을 다녀왔던지!!

행사 다시 보기 : 월경 페스티벌!!! 그 색달랐던 축제의 추억이랄까?

현상수배 : 막말하는 마초 네티즌을 고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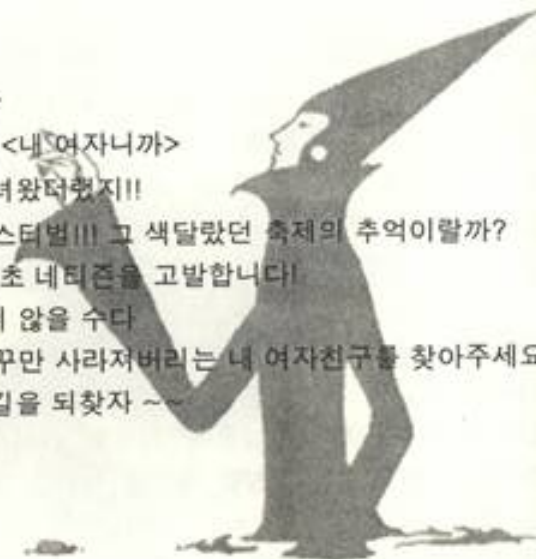
We are good sisters : 지치지 않을 수다

We are good sisters : 자꾸만 사라져버리는 내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사진칼럼 : 여성의 밤길을 되찾자 ~

함께해요

쑥쑥쑥



새로쓰기/고정칼럼

노동

>> 여성운동하기 : '확 "깨는" 기쁨

by. 도기

술 마시는 건 좋아하지만 노래를 못 부르는 나에게는 즐거워야 할 오티나 엠티, 뒷풀이가 때때로 고통스런 장소로 다가온다. 바로 술 마시는 분위기가 노래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말이다. 혹시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노래를 해야만 한다면..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괴로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분위기 깨는 애라고 화살이 꽂히는 것은 날 더욱 힘들게 한다. 나는 내가 노래를 싫어하는 것이 내 죄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나의 결점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일 뿐, 그 누구에게 내 고통의 원인을 돌리겠는가? 2002년 OT - 그녀가 말했다.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다같이 즐겁게 불려요." 그 말은 들은 순간 난 완전히 "췌다."

깨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 나 하나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것. 나는 나 스스로의 나의 고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이기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집단이라는 이름 하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라는 것. 그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모두가 그들이 즐거운 것처럼 즐거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들이 발산하는 폭력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고통 받는 이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이가 그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그 고통에 대해 다시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나는 우리 과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믿었다. 남녀가 어울려 밤새 술을 마시고 과방에서 잠을 자고, 스스럼없이 남자 선배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야한 농담을 즐기며 다같이 즐겁게 웃기도 했다. 오히려 남학우들이 여학우들을 위해 많은 부분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힘을 쓰는 일이나, 먼 곳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에 그랬다. 2003년 MT - 우리 조에는 여학우가 6명, 남학우가 단 두명이었다. 새내기와 4학년 선배였다. MT 첫 날 조장을 뽑는 시간, 남자새내기에게 4학년 선배가 말했다. "네 역할이 중요하겠다. 네가 잘해라." 그 말은 들은 순간 난 완전히 "췌다".

깨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 평등이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 그 남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여자로 보였다는 것.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자라 바라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남성중심적 문화의 종속적 존재로서의 여자라 바라보았다는 것. 그들은 우리를 성적대상으로서 인식하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만

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남자라고 착각한다는 점. 그렇게 말하고서는 여학우와 CC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그리고 2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진 우리 과의 역대 학생회장 중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

힘들었다.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래서 난 그녀들을 만났다. 나는 여중이나 여고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서, 유치원 때부터 남자가 없는 공간에 있어본 적이 없었다. 여성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재미를 처음으로 맛보았다. 그녀들을 알아가고, 그녀들과 함께 여성주의를 공부해 나가면서 나는 점점 더 깨어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미처 몰랐지만, 난 언제나 남자들의 눈을 의식하며, 남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했었다. 그로 인해 내가 놓쳤던 것들을 되찾게 된 것이 지금도 많이 기쁘다. 가장 기쁜 것은 내 주변에 여성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왜 남자교수님들이 '멋있다'는 것만이 수다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열성적인 강의를 하는 여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다. 이성중심적인 '성'이라는 구분에 갇혀 놓쳤던 많은 것들을 나는 천천히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성주의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쁨만을 안겨 주는 것은 아니다. 노예로 태어난 자가 자유의 개념을 알게 되고 자신의 처지는 자유가 없는 비참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아예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기에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것 - 둘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일까? 여성주의를 알고 나서 나를 움아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일면 많이 힘들다. 재미있지만 했던 술자리, 남자들과 어울려 나누는 떠들썩한 잡담, 그런대로 엄마를 위해주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의 오랜 애인. 나에게 있어 마냥 좋았던 것들의 어떤 일면은 나를 억압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인해 생기는 내 일상의 소소한 변화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고통과 행복을 동시에 안겨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성주의', 날 확 깨워준 그녀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녀를 더 깊이 사귀어가련다.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고 하지 않나? 그녀를 알게 된 기쁨의 대가로 가시에 약간 찔리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겠지. 빠른 시일 안에 지금의 아픔들이 결국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본다. 그리고 언젠가 여성주의를 가시 없는 장미로 만날 수 있게 되는 - 그런 세상을 꿈꾸어본다.

>> 미디어비평 : 이승기의 <내 여자니까>

by. 한길

한달 전쯤이었다. 한 가요프로그램에서 이름과 얼굴 모두 생소한, 어려 보이는 신인가수가 나와서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듣다가 황당해 했던 게...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꼭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연상연하 트렌드와 함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란다. 연상연하?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커플을 이렇게들 부른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커플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 '연상연하'라는 단어는 분명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나이가 많은 커플임을 나타내는 단어일텐데... 연애상대로 여성은 언제나 남성보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가냘퍼서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은연중에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남자 연상-여자 연하는 굳이 '연상연하'라고 부르고 할 것도 없이 전혀 특별한 게 못 된다.

여성이 연상인 커플의 대다수가 서로 이름을 부르고 말을 쓴다. 주위에서도, 당사자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남자친구 몇 살 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아...그럼 말 트겠네(당연하다는 말투로). 뭐 서너 살 차이냐도 다 반말하더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편하지 않아? 한 살차인데 뭘~ 그리고 남자친구가 누나라고 하면 이상

하잖아~"

도대체 뭐가 당연하고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 거겠네. 뭐 서너 살 차이까지도 반말을 한다니 나도 '오빠'라는 말 대신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나 현실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 나이 어린 여자친구에게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부르면 좀 그럴더라"라고 말할 남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있긴 할까. 주위 사람들도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친구에게 반말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여자에게 '어디 오빠한테 버릇없이...'라고 나무랄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기 때문에 넌 '내 여자'라니...노래 가사 속에서 '누나'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동생 취급을 받는 남자는 어찌됐든 끝까지 누나는 '내 여자'라고 외친다.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짝사랑의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줄 처음 알게 되었다. —^

나보다 나이 많은 누나이지만 결국 누나도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누나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너'라고 부르겠다는 저 자신감, 아니 오만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오만함이 먹혀 들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는 나...억울해진다.

★행사다시보기 : 새활을 다녀왔더랬지!!

by. 사이

냥이~ 나 저번 7월 마지막 주에 새활을 했어. 새활이란 건 새움터 활동을 줄여서 말하는 건데 새움터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 그곳의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암튼 처음 새활을 제안 아니 새활 교양학교를 간 후에 가는 것이 결정되어 가게 되었지 -0-;

우리학교에서 가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곳으로 가지 않고 둘로 나뉘어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두 곳에서의 활동을 서로 평가하려고 학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새활을 하게 되었는데...

교양학교를 하고 새활을 처음 가는 날에 정말 많은 것이 두려웠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지 등등 새로운 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 생기는 그런 기분 있자나 그런 것 말고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는 활동이었어.

흠 그리고 나와 같은 곳에 가게 된 분은 저번 겨울에도 새활을 참여해서인지 새활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나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마니 미안하게 생각해.

새활을 하면서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들과의 얘기를 들으며 지금 현 상황이나 성매매 관련 일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어. 어흑 T.T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야....

또 심부름을 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내가 사는 곳보다 외국인도 혼혈아이들도 많이 눈에 띄었어. 그런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졌거든!! 내가 왜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그 외국인들을 보는데 두려움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아... -0- 넌 외국인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날 공격할 자세를 취한 것도 아니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것도 아닌데 말이야... +_ +

새활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돌아다닐 때도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를 하는 업

소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들어와 혼란을 느꼈어. 서울의 한 지역이 아닌 곳곳에 서울이 아닌 지방 여러 산골짜기 시골 같은 곳도 널려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지.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게 딱 들어맞다니까~

그런 곳에 감금되어 있는 언니들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 @_@ 휴휴 한숨만나와

나는 새활을 마치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컴퓨터도하고, 게임도하고, 책도 보고,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나이 또래 또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인 성매매 피해 여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정말 힘들었다. 그곳의 언니들은 지금도 감금된 생활과 자신은 하고 싶지 않지만 선불금이라는 것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새활 이후에 여러 사람들과 성매매에 대해 얘기 해보았어.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건 어느 정도 있어야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게지', '남자의 성욕을 풀 곳이 있어야해', '돈을 쉽게 벌려고 그런 곳에 가는 거야. 정신이 똑바로 있었다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거야' 등등.. 나의 생각이 더 복잡하게 만든 말 뿐이었어. 지금도 혼란스러운 걸..

냥이는 이걸 보고 나에게 해줄 말 없어?

反성매매 포스터



~~~~~  
~~~~~  
~~~~~

♀.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이에요. 그녀들이 그곳에서 탈출하고 사회에 재적응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는 곳이지.

>> 행사다시보기 : 월경 페스티벌!!! 그 색달랐던 축제의 추억이랄까?

by. 축

축제라, 과연 어지간히 고지식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나도 록 밴드의 공연장이라던가, 어떤 축제나 행사의 무대 같이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한 트럭 넘게 있고, 오로지 즐거움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게으름과, 지갑이 얇다는 이유로 그런 자리에 가는 건 몇 년에 한번 정도라, 그런 자리를 자주 가보지 못하는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다.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연하는 사람들과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관객들이 즐거움을 위한 자리에서 언제나 무게를 짊어지고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을 때에 우리나라엔 정말 양반들이 많다는 걸 깨닫는다.

얼마 전이더라? 개강 후 얼마 안 되서 바로였던가? 그녀들이 월경페스티벌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순간 좀 낯설고 어색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지만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 같다. 글썄, 그 좀 낯설고 어색한 자리가 될 것 같았던 생각은 왜 들었을까?

건대의 그 커다란 호수 주변에 마련된 월경페스티벌의 현장은 고등학교 때 축제를 기억나게 하는 여러 참가단위들의 부스들이 먼저 맞이해줬다. 대안생리대 만들기를 하고 있던 피자매연대의 부스를 보고, 기겁을 하며 '우, 우리 또 대안생리대 만드는 거야?'라고 같이 갔던 친구에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대행이도 대안생리대 만들기는 안했다. 대안생리대의 필요성에 대해 머릿속으로 '아하 그래서 필요하지'라고 알고 는 있지만, 만들 때 손에서 피가 줄 줄 흐르게 했던 바느질의 공포 때문인지 보자마자 처음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다. 그곳에서 페미니즘 캠프 때 이야기 들었던 여러 가지 대안생리대를 볼 수 있었다. 그중 해면이 기억에 참 많이 남았다. 그 해면-공처럼 생긴 스펀지 같이 생겼다-이라는 바다 속의 천연스펀지로 된 대안생리대를 설명해주실 때의 표현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

피자매연대의 부스에서 생리를 경험할 수 없는 남성이라 그런가? 대안생리대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다. 또,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꽤 자세하게 그려서 보여줬던 부스가 기억난

다. 글썸? 성계 대한 내 기존의 시각- 성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꺼내기를 꺼려한다던가, 개인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것-들 이 변하지 않아서 일까? 이렇게 자세히 그려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다지 썩 마음에 내키진 않았다.

월경페스티벌은 올해까지 6회째를 맞이했고, 이번 해에는 생리 전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무대행사가 있었다. 특히, 콩트와 준비단의 공연, 이가람인지 이자람인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밴드의 공연 3가지가 기억에 남았다.

콩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축제와 관련된 주제를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또 단순히 남성이 생리할 경우와 여성이 생리할 경우를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했지만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바와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장면-남성과 여성의 비교가 끝나고 연인들이 생리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여성의 생리가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장면 등등- 이 있어서 더욱 좋았다. 콩트 끝에 생리 때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했던 자리가 있어서 기억에 남은 자리였다. 그러나 콩트팀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서였을까? 콩트 중간 중간에 보여진 성에 빗대어 사람을 비하하는? 욕설들 그리고 너무나도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발언들과 행동들에 불쾌하기도 했다. 그러한 욕설들은 대학에 와서 여러 고민들을 가지면서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노력했고 이젠 거의 안 쓰게 된-그러나 부끄럽게도 간혹 폭주 시 사용해버린다-게 된 욕설들이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던 것 같다.

월경페스티벌 준비팀이 스윙댄스 팀의 공연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는 '앙~ 저 춤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당'하게 만들고 눈이 땡글땡글하게 만들었다. 원래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월경댄스?를 배울 수 있던 자리가 되어서 더욱 기억에 남았다. 매혹? 신비로운 목소리로 가슴을 잔잔하게 울려주는 노래들을 불러줬던 이가람인지 이자람인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밴드의 공연은 노래나, 악기들의 소리도 좋았지만 보컬이 중간 중간에 잠에서 막 깬 듯한 목소리로 '생리대 너무 비싸요'라며 순간 분위기를 아작하고 깨어서 배꼽잡고 웃어야만 했다.

언젠가 선배하고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선배는 남성이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데에 한계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었다. 글썸, 아직은 그런 한계를 느끼기엔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충분히 당시 분위기에 몸을 맡기고 즐기면 뭔가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 적지

않았다. 한계라고 하기엔 내가 고민하고 있는바가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면, 내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생각들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해서였을까?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축제의 자리에서 어색함과 낯선 기분 때문에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그렇게 느끼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이 처음 월경페스티벌을 다녀와서 축이 가지게 된 기억이었다.



## >> 현상수배: 막말하는 마초 네티즌을 고발합니다!

by. 한길

컴퓨터를 켜면 우리 집 컴퓨터 시작 페이지인 모 포털 사이트가 뜬다.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화제 뉴스들...  
읽고 싶은 제목이 눈에 띄어도 섣뚱 클릭 할 수 없다.  
기사 밑에 주절주절 달려있을 그들의 글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될 것이 뻔하기에...

성폭력 사건에 관한 기사 아래에 있는 한 줄 의견에는 '확실히 조사해봐라'  
'여자가 이상하다'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음 다 허락 한거네 뭘...이게 무슨 성  
폭행이야?'  
그들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일 거다. 그들이 킁킁대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침묵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자책감에 시달려야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임을, 그들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 거다.  
더 이상 '너희 누나나 동생 일이라고 생각해봐' 따위의 유치한 답글을 달지 않  
기로 했다.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된 후부터 말이다.

올림픽 중계에 성 차별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기사 아래에선 '피곤하게 별걸 다  
따지네', '이래서 폐미들이 싫다니까' 등의 폭언이 넘쳐난다. 'X년', '창녀' 등은  
옵션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들은 나를 '얼굴도 못 생긴 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곤한' 여자라고 부른다.

예전에 모 여대 학생이 살해당했다는 기사 밑에서 'XXX같은 △대년 하나 죽은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드냐'란 글과 그에 동조하며 그 학교 학생들을 싸잡아  
욕을 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대략 비슷비슷하다.  
여성부 없애라고, 여자도 군대 갔다 와야 한다고, 요새 젊은 여자들 애도 안  
낳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물론 그냥 이렇게 말 안 한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여성 비하적이고 성적인  
욕을 잔뜩 뱉어낸다. 한 줄 의견이 아니라 한줄 욕설일 뿐이다.

그들은 생각해 봤을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여성부는 있는데 왜 남성부는 없  
는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여성부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왜 여자들이 아  
이 낳는 것을 주저하는 건지? 젊은 여자는 아이 낳는 의무를 가진 존재인지?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처음엔 그런 글들을 보면 화가 나서 답글을 달고, 그 답글에 달린 욕설에 또  
답글을 달고...이런 식으로 한 시간 동안 싸우고 그랬었다.  
요즘엔 '아...이 기사 밑엔 분명히 [그들]이 날뛰고 있겠구나' 싶은 글은 기사  
만 보고 밑에 있는 '한줄의견'란은 아예 보지 않는다. 아예 기사 자체를 안 읽  
는 날도 많아졌다.

• 나도 한마디

▶ 운영원칙 ▶ 기사로 돌아가기



로그인하지 않으면 글을 달게 할 수 없습니다.

댓글 입력

- 공실이 계계인으로 불어 다닐 수도 없는거고, 어느정도 자신이 주의를 해야지.....  
더이상 뭘 어쩌라는건지..... 2004-08-15 17:30:42 \*
- 말의 인간 나 여동생이나 누나 엄마 화이트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회사 회의에  
어릴수없이 참여하다가 늦게 와서 그런 일 당해도 그런소리 나오잖아. 여자도 사회  
생활이나 공부하다보면 늦게 출근하는건데 꼭 슬럽고 뽀빠는여자만 늦게다니냐 20  
04-08-14 10:54:50 \*
- 그러니까 집어입지 뭐하러 개같은말하고 나오나 이년들아 그냥 집에서 애나봐 200  
4-08-12 21:55:16 \*
- 여성단체에서 뭘 어쩌라는 건지 알수가 없군요. 어느정도의 자기방어는 자신들이  
해야하지 않나요? 밤늦게 돌아다녀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남  
자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나요? 절대적인 남녀평등을 외치는 여성단체들도 이  
럴때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네요. ㅋㅋ 2004-08-11 17:35:02 \*

"밥 먹으러가자"

아주 조용하다 못해 건조한 느낌까지 드는 공간에서 그녀 나름대로 최대한 작게 얘기했을 법한 말은 상당히 크게 들렸다. 나한테 작게 속삭인 그녀들은 가리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몇 번 자습실 자리 맡아주고 그러면서 안면을 트기는 했지만 가리없이도 만날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오늘 가리가 학원 안온다고 너 찾아서 밥 먹으랬어. 자기 학원 안 오면 너 아마 집에 갈 때까지 굶을거라고" (주: 가리는 친구 애칭)

"아, 정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온지라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꾸역꾸역 밥을 먹었다. 전화도 없는 나를 온 학원을 뒤져 찾아냈을 그녀들의 정성과, 혼자 밥 못먹는 친구 걱정에도 다른 친구들에게 다소 엉뚱한 부탁까지 했을 가리 생각에 가슴이 짠 해지기도 했다.

"엇!! 너 학원 왜왔어? 너 이제 수업 없잖아"

"왜 오긴... 밥 먹으러 왔지. 나 없으면 너 밥 못 먹잖아."

늦잠 자느라 수업 끝났을 시간에 일어나도 동네 독서실에 가지 않고 부랴부랴 학원으로 간다. 혼자 밥 먹으면 오죽 서러울까 싶어서....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도 나쁜 습관은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따끔하게 충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활패턴이 비슷한 우리는 그 자괴감을 알기 때문에 내 공감 하나를 친구 손에 쥐어준다. 다만 어쩌다 '우리 이러다가 수능 날에도 지각하면 어쩌냐'며 웃고 말 뿐이다. (수능 전 날 공통되게도 우리는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

다. π\_π)

내가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밥 이야기' 이다.

또 뭐가 있더라....

길거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주전부리들을 먹다가  
다음날 돌이 같이 배탈나서 설사 때문에 고생한 일

모의고사 보는 날에는 암묵적으로 미친 듯이 먹어대는 날로 정해놓은 일

기분전환 한다고 비디오 방 가서는 비디오는 안보고  
항방한 에어컨에 늘어지게 낮잠잔일

수능 끝나면 테트리스 눈치 안보고 실컷 할 수 있겠다며  
어서 '신' 이 되는 그 날을 생각하며 공부하자고 다짐하던 일

하루에 300원 어치만 오락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너무 어려웠던 일

내가 편찮다는 그날을 쫓아 어디서 내리는 지 까지 알아냈던 일  
(이거 쓸까말까 하다가 쓰는 건데, 생각하면 진짜 쑥스럽다. =\_=;;;)

새벽부터 학원 등록해야하는 날은 인기강좌를 끊었을 때의 그 부듯함을  
나누면서

사실은 밤을 새고 왔노라고 조심스레 고백하며 웃었던 일

하나하나 다 풀어놓자면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그 해 있었던 일  
상의 경험

에~~~ 이렇게 무슨 우정의 끈덕지가 되느냐고??

사람들은 '우정' 이라고 하면 흔히 둘 그남들간의 무엇만 생각한다. 그 녀들의 소소하고 알콩달콩한 경험은 가치절하 되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예전에 싸이월X에서 돌았던 카툰 중에 한 컷은 술 마시고 노래부르면서 친구들끼리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한 컷은 음료수하나 들고 조용한 공원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의 것이 있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정이 후자의 모습이라면 아직도 내 이야기가 '이런 것' 이라고 할 수 있을까?

후아-

수다를 떨고 싶어지는 일요일 오후이다.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과자 한 봉지가 있다면 더욱 !!)



>> WE Are Good Sisters:

자꾸만 사라져버리는 내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by. 카라멜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의 핸드폰 전화번호부에도 역시나 백 개가 넘는 전화번호들로 가득 차 있다. 매 번 정리한답시고 이 번호 저 번호 지워보지만 그래도 남는 번호들과 어느새 다시 채워지는 번호들로 핸드폰 전화번호부는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그런데 정작 이유 없이 술 생각나는 저녁이나, 갑자기 핑크 난 약속에 횡~하니 찾아 온 한가한 그 시간에는 그 전화번호부를 찾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상한 일은 그 수많은 전화번호 중 내가 찾게 되는 이름은 고작 열 손가락도 채우지 못하고 거기서 또 이 사정, 저 사정 생각하다보면 그 중 남는 것은 고작 두, 세 개?! (물론 이것도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누군가 말하는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걸까? 라고 시답잖은 생각을 잠깐 하며, 통화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뭐하나? 넌 나 안 보고 싶냐? 나오지.."라고 말이다.

그러면 그 친구 아마 어김없이

"참 나. 백 년 만에 연락하는 기집애가 재수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분명 그 친구 내 횡~한 시간을 채워주려 나올 것이다. (물론, 피치 못 할 사정을 말하며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보통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나 편할 대로 옆치없이 불러낼 수 있는 친구들은 알고 지낸 횃 수 동안 먹어치운 밥 그릇 수 만으로 동산 세, 네 개는 만 들고, 쏟아낸 수다만으로 연재소설 10권은 우습게 엮어낼 수 있는 관계가 대부분이다.

고등학교 시절, '소울 메이트', 혹은 '베스트'같은 얼토당토않은 이름을 붙여가며 만나오던 친구들. 바로 그 친구가 애인 생기면 내팽개쳐지는 억울한 위치에서도 굳건히 나의 옆을 지켜와 준 사랑스러운 나의 여자친구이고, 나 또한 그녀에게 그렇게 언제나 버림받을 각오하며 그녀들 옆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녀들의 여자 친구이다. 그건 연애 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여자들만의 아기자기하고 때로는 유치해 보일 수 있는 독특한 감정교감인데, 사실은 '어떤 교감보다 특별하다. 물론, 그들도 '남자들도 그런 거 있다!' 라고 하며 자신들의 또

거운 동지애를 불태우는 술자리 같은 끝도 없는 무용담을 늘어놓을지 모르겠다만, 당연히 남정네들의 그 동물적인 어울림과는 차별화 되는 우월한 것이 우리만의 그것이라고 내 단언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를 대보라면 '너네처럼 가축적인 애들은 몰라!' 라고 잘라서 말할 수도 있다. 정말로, 그네들은 우리들의 그 고차원적인 교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열등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가 간혹 존재한다고 해도 그를 처참히 총살 할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대학이라는 곳, 혹은 사회라는 곳에 우리가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소울 메이트'라 부르던 그녀들을 마이너리그에서 언제나 호출을 기다리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다. 나도 나름의 연애라는 거 해본 적 있어서 연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품은 알고 있다. 그냥 해죽~ 해죽~ 웃게 만들어 주고, '내가 이래서 사는 구나'라고 삶의 의미마저 부여해 주는 게 그 연애이니 말이다.(이것이 참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내 기억들과 감성들 구석구석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의심 없이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들며 동의의 표를 던져 줄 (것이라 믿는) 것은 역시나 야자시간 몰래 나가서 밤새며 이야기 하고, 엄마에게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던 내 여자친구들과의 즐거운 애정행각이다.

연애 시작이 단절, 연애 끝은 다시 우리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녀들...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아주는 하지만 나는 그런 그녀들이 알리고 안타깝다. '20대라는 나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에도 많다.' 라는 일반 명제에 사랑에 눈 먼 그녀들은 동의하고 싶지 않아버린 것이다. 물론, 처참히 깨어진 연애질의 끝에는 순간적으로 마취가 깨어나지만 다시 그 연애에 다시 중독 되어 버리면 그 어떤 악도 없다.

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나의 현실, 당신의 현실, 그리고 내 친구의 현실이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바쁜 모든 일 재쳐 두고서(정말 바쁘다^^),

그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낸다.

'오늘 나랑 보자. 니 애인이 만나재도 다 뿌리치고 와야 해. 안 오면 끝이다!

올 거지?'라고.

그럼 분명 이런 답장 또한 올것이다.

'이년이 미쳤나.. 그런데 무슨일 있어? 어디서 볼까..'라고 말이다.



## >> 사진칼럼:여성의 밤길을 되찾자~~

by. 신치 flybirch@hanmail.net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성 연쇄살인, 성폭력에 대해 언론과 사회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성",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닌 여성"들만을 비판하며 그녀들에게 밤길을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 어디에서도 그 여성들의 밤길을 위협한 가해자, 남성에게 가하는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사회에 맞서, 지난 2004년 8월 13일 오후 8시,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릴 무렵,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 손에는 손전등과 "여성에게도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권리가 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많은 여성들이 모였다.

연쇄살인, 성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한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하얀 소복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의 밤길을 되찾자고 구호를 외치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종로를 지나다니는 많은 이들에게 알렸으며, 흰 옷을 벗어던지며 그녀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에 한바탕 욕을 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밤길을 당당하게 활보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진정, 이땅에서 여성들이 밤길을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그런 날이 올때까지, ]

"달빛 시위" 계속될 것이다.  
내년엔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수 있길...

to be continued...



## >> 함께해요!

### 1. 제 3 회 페미니즘 페스티벌의 문이 열립니다~

10월 11일(월) ~ 10월 14일 (목)까지~ 민주로 곳곳에서 페미니즘 페스티벌 기획단과 함께 멋진 페미니즘 페스티벌 만들어 봐요~~!!! 기대하시라~!! 개/ 봉/ 박/ 두~!!! 두두두두두~!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2. 일상에서 느끼는 힘들.. 여성주의를 홀로 어디선가 고민하고 계세요??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이곳~!!! 싸이월드에서 새로 생긴 송실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이곳에서 만나요~  
110299.cyworld.com 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우리, 함께 고민해요~!!^^

### 3. 9, 10, 11월 십만원 여행기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여행 계획을 기다립니다~!!  
한번 보냈었는데, 선발되지 않았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죠?  
다시 한번 멋지게 도전해 보세요~!!!  
10월 10일(일)까지 [aliceact@hanmail.net](mailto:aliceact@hanmail.net) 으로 보내주세요~!!

### 4. 여학우 문화가 숨쉬는 여학우 공간을 만들어가는 여휴관리 위원회(여위)

Pajama Sisters 를 함께 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남학우 중심의 문화에 찌들어, 이제 여성들간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으신분, 나의 멋드러진 취미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분~!!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

망설이지 말고 용기 내어 여휴에 있는 PS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구요~!!!^.^

### 5. 다음번 매체, "We are Good Sisteres" 에 실을 글을 공모 합니다.

"여자들끼리 무슨 재미로 엮티 가냐?", "여자들끼리 영화를 어떻게 봐?"  
여자들끼리 놀면 재미없다고요?? 꼭 여자, 남자 이렇게 짝(?) 지어서 놀아야 재미있다고요?

이러한 편견들을 무참히 깨뜨릴 여러분의 글을 공모해 주세요~!

A4용지 한장 내지 두장에 내 여자친구들과의 즐거운 수다 이야기, 즐거운 여행 이야기, 엄마와의 특별한 사연도 좋아요~!! 내 여자친구와 나는 이렇게 재미있게 논다~! 라고 자랑하고 싶으신분들!! 글을 써주세요~~  
여성들간의 관계를 들여다볼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연을 기다려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드립니다~!!^^

# >> 쓱덕쓱덕

죽 - 아~ 배고파아~~~ 덩떡~  
아무나 뽀니다. 머엉~

읽가느끼는어지러움에  
장이트끼는포대강에  
참을수없는생리통 - 꼬마

도기 - 난 아름이 두개야-!!! (라고 쓰고 실군요..^^)

재영 - 밤에는 즐려요... ㄴㅇㅂㅂ..(부비부비..)

이번 매체에 실지 못한 글은..  
아쉽지만, 다음번에 꼭 만났으면 해요.. ^^ (비이삭, ㅎ, ㅅ 미안..)  
글을 쓸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정말 절대 다들어지지 않는 글이군요..  
나의 글습이란.. :: - 신치

바다 - 여성주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덟 사람의 얘기가 아닌 세상의 뉘그러는 여성의 이야기니까요-!!^^  
하~ (어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남생적름 느껴본 두근거림\*\_\* 멋진 경험이었어요~ - 한길

방중에 나름대로 책도 읽었는데, 이제든 글도 쓰다니..  
앞으로 심천도 해마지~!! ㄹ 기동침남

사아 - 어허;; 매체글을 쓰는것 ㄱ.ㄱ 용이요 용.. @\_@ 푸헛~

키라엘 - 2004년, 조금은 즐거웠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행복할지도 모르겠네요..

미란 - 언니보고서포♡♡

생각만과 살아있다!

동심을 향하여, 완전 낙원으로 온 국어였다.

죽죽, 엉웃, 뽀뽀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시로

오.만소사.반.장.종.경.가.자.아~냥